

2026-1 취리히 연방 공과대학교 ETH Zürich 교환 보고서

전기·정보공학부 천원영

목차

0. 머리말

1. 출국 전 준비

- A. 비자 발급
- B. 기숙사

2. 생활

- A. 교통, 통신, 은행
- B. 입국 직후
- C. 여가 및 운동
- D. 학내 시설

3. 학업

- A. 과목 선택
- B. 시험 및 평가
- C. 전공 수업
- D. Semester Project

4. 문화

- A. 언어
- B. ESN Zurich
- C. 여행

5. 맺음말



0. 머리말

저는 전기정보공학부 24학번에 재학 중인 천원영입니다. 2026년 봄학기 취리히 연방 공과대학교 ETH Zürich의 D-ITET 전공으로 파견을 마치며 귀국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출국 전 준비부터 현지 적응에 이르기까지 다른 분들의 보고서가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기록으로 남기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교환학생 기간의 경험이 저의 진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향후 ETH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하게 될 경우를 염두하고 스스로 참고하고자 방대한 글을 작성했습니다. 편의를 위해 서두에 목차를 배치하였으니 필요에 맞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TH를 선택하게 된 것은 뛰어난 연구 환경과 취리히의 여행 접근성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유럽 2026 QS Ranking에서도 2위를 차지할 만큼 우수한 교육 기관으로 잘 알려져 있을 뿐더러,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것도 고무적이었습니다. 그 외의 생활적이나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한 상태로 지원하였는데, 여러모로 정말 만족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우선 취리히는 외국인 거주 비율이 약 30% 정도이기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고 영어로 생활이 무척 용이하다는 두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럽 국가 중 최상위권의 치안, 교통 서비스, 그리고 자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도시 인프라와 아름다운 자연을 동시에 곁에 두고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는 가장 매력적이었습니다. 다시 교환학생을 지원하는 시기로 돌아가더라도, 저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스위스 취리히를 택할 것 같습니다.

1. 출국 전 준비

A. 비자 발급

서울대학교에서 Nomination이 마무리된 이후의 등록 절차는 해당교에 Application을 진행한 후, Acceptance Letter를 받아 비자 발급을 받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ETH의 경우 Application 마감일이 이른 편이었기 때문에 다른 교환교보다 빠르게 Nomination을 진행했고, 저는 8월 21일에 추천 결과를 받았습니다. 온라인 Application은 9월 1일까지였고 ETH Zurich Mobility-Online 사이트에서 빠르게 진행하였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어 큰 어려움 없이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Application 마감에 비해 Acceptance Letter를 11월 초 경에 받아 초조함이 있었는데, **ETH는 비자 발급을 학교 측에서 진행해주어서 절차가 편리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Acceptance Letter를 받은 이후 대사관에 전화로 비자 인터뷰를 예약하고 각종 서류를 지참하여 발급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 학기 동안 사용할 자금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재정 증명서(1,000~1,500만원 내외)를 첨부해야 하는 점이 까다로운데, ETH는 이를 비롯한 인터뷰 절차까지 모두 생략해준다는 점에서 수월했습니다. 참고로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95프랑(약 17만원)을 ETH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메일로 받은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Mobility-Online에 업로드하면 ETH에서 비자 승인을 받은 서류를 대신 보내줍니다. 이후에 진행할 절차는 해당 서류와 Visa Application(D type), 여권 사진 및 여권을 지참하여 스위

스 대사관을 방문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비자 인터뷰와 달리 이 절차는 별도의 appointment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 시간인 평일 9~12시 중 자유롭게 방문하면 됩니다. 여권을 제출하면 일주일 후 비자가 부착된 여권을 수령할 수 있으며, 현금 5천원을 지참할 시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출국 2주 전 대사관을 방문했지만 문제 없이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B. 기숙사

Acceptance Letter와 함께 기숙사를 지원하라는 메일이 옵니다. ETH의 경우 자체 기숙사 대신 WOKO라는 곳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를 사용합니다. 기숙사 지원이 11월 15일까지였기 때문에 안내를 받는 즉시 신청해야 했고, 거주 기간은 다음의 세 가지 옵션이 있었습니다.

1) Feb.2 - Jun.27 / 2) Feb.2 - Aug.28 / 3) Feb.2 - Jan.28

한 학기 파견을 가는 저는 1안과 2안 중에 선택을 해야 했고, 학기가 끝난 후 8월에 시험을 치르는 Session Examination 평가 방식의 교과목이 많아 이를 염두하여 2안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많은 교환 수기에서 선호하는 기숙사를 작성할 것을 추천했으나, 저는 당시 선호도를 작성하는 칸을 특별히 찾지 못해서 추가로 작성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지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썼던 것이 최종 신청이었고, 학교에서 비교적 멀고 월세가 비싼 **Alte Landstrasse 98**이라는 기숙사에 배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결론적으로는 정말 만족스러웠고 가격만을 제외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숙사였습니다.

월세는 800프랑 후반대로 서울대입구에서 자취할 때에 비해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었지만 방이 기존 자취방의 2배 크기로 매우 넓고 개인 화장실도 있었습니다. 한 기숙사 내에서도 방마다 구조와 크기가 조금씩 달라 가격에 차이가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월 800프랑 초반대에 금액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샤워 시설은 방 외부에 분리되어 있어 샤워가운 등을 챙겨가면 용이할 것 같습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방마다 작은 테라스가 있었습니다. 수납 공간은 작은 옷장 2개에 서랍장 2개가 있어 충분했습니다. 저희 기숙사는 각종 침구류와 책상, 의자, 개인 식기(몇 개의 그릇과 숟가락, 포크, 컵 등)까지 제공된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방에 난방도 잘 되어 2월에 도착했음에도 가져온 전기 장판을 사용할 일이 없었습니다. 건물은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기숙사와 달리 보증금과 월세를 1월 초까지 한 번에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 약간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제가 문의했을 때 지불 금액을 약간 높이고 월마다 지불하는 옵션도 있다고 안내받았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숙사비는 우리나라 은행을 방문하여 해외송금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기숙사비를 넣어둔 계좌의 이체 한도를 미처 확인하지 못해 송금이 불가능할 뻔 했는데, 교환학생임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통해서 잠시 한도를 풀어 송금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 계좌의 이체 한도를 잘 확인하셔서 차질없이 송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은 퇴거 이후 12주 이내에 환급됩니다.

기숙사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크게 주방과 세탁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 50명의 인

원이 하나의 주방을 공유한다는 것이 불편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기숙사 친구들과 같이 요리를 하거나 밥을 먹으면서 쉽게 친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기숙사를 같이 사용하는 친구들은 거의 전부 ETH 교환학생이었습니다. 각자 사용할 수 있는 냉장고 칸도 방 번호로 라벨링 되어있어 문제가 없었고, 개인 식기 및 상온 재료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주방에 붙어 있었습니다. 조리 도구는 대부분 공용으로 비치되어 있어 개인 수저와 락앤락 정도만 챙겨왔습니다. 세탁실에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2개씩 있고, QR코드로 시트에 원하는 시간대를 예약해서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인원에 비해 세탁 시설이 적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예약제라는 점에서 제가 이전에 살아본 한국 기숙사들보다 편리했고, 이를 전 정도에만 예약한다면 잡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타 기숙사는 매번 세탁을 할 때마다 비용이 드는 곳이 많은데,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주방과 세탁실에 각각 이전에 살던 사람들이 두고 간 일부 조미료나 세제가 공용으로 남아있어 초반에는 그것을 사용해도 무방하였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한 학기에 두세 번 정도 청소 당번을 맡아 일주일 동안 맡은 부분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기숙사에서 도보 2분 거리에는 스위스의 대표적인 마트 체인인 Migros와 Coop이 모두 있어 아주 편리했습니다. 특히 Migros는 규모가 제법 컸고, 쌀이나 간장, 참기름과 같은 한식 재료나 라면도 (저렴하지는 않지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마트는 방문할 일이 매우 많으므로 어플을 설치하여 꾸준히 적립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Migros 앱에서는 결제 금액의 1%를 적립하여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제공해주었습니다. 대부분의 마트가 일요일에는 영업하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오후 8~9시에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Zurich HB(취리히 중앙역) 근처에 있는 큰 Coop 매장 등 일부의 경우에는 오후 10시까지 영업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숙사에서 학교까지는 버스로 30분 정도 소요되었으나 서울대입구역에서 뿔공대까지 등교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체감 상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다녀보니 멀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기숙사에 입주할 때는 사전에 Student house와 House representative에게 도착 예상 날짜와 시간을 메일로 보내고, 추가로 House representative와 미팅 시간을 온라인으로 잡아야 했습니다. 저희 기숙사는 셀프 체크인 형식이어서 안내받은 대로 방 열쇠를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밤늦게 취리히에 도착하는 것은 교통과 체크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낮에 도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입주일 밤에 House representative과 미팅을 했을 때에는 거주허가증에 필요한 집 계약서를 받고 House Tour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용 공간의 사용 방법과 와이파이 비밀번호, 분리수거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종량제 봉투를 의무적으로 구매하여 쓰레기를 배출해야 하지만, 이곳은 기숙사 차원에서 전용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불필요하였습니다.

2. 생활

A. 교통, 통신, 은행

생활적인 측면에서는 사전에 준비할 것이 많을까 우려했으나 대부분 현지에서 도착해서 하는 편

이 간단했습니다. 저는 취리히 공항 도착 직후, 공항 내부에 위치한 스위스 연방철도 SBB 영업점에서 교통권을 구매했습니다. 스위스는 교통비가 비싸고 다양한 종류의 교통권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이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통권은 **Half-fare card**로, 스위스 전역의 대중교통을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120프랑짜리 연간권입니다. 저는 기숙사가 위치한 Zollikon이라는 동네에서 학교로 등하교해야 했기 때문에 **ZVV 시내 교통 패스**를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기후동행카드와 유사한 시스템입니다. Zurich city(110 zone)에서 Zollikon(140 zone)을 오가는 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월 94프랑짜리 패스와, Zurich city에 인접한 6개의 zone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오전 9시 이후에만 사용이 가능한 월 91프랑짜리 패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수업이 10시 이후에 시작했기 때문에 후자를 구매했습니다. 해당 패스로는 기차, 버스뿐만 아니라 취리히 호수의 유람선까지도 이용 가능합니다. ZVV 교통 패스도 SBB 카운터에서 직원분께 거주지와 학교, 나이를 말씀드리면 제 상황에 맞게 추천해주십니다.

스위스 전역에서 무제한으로 사용가능한 교통권은 대표적으로 **GA, 세이버데이 패스, 스위스패스**가 있습니다. GA는 월간권 혹은 연간권으로 판매되는 무제한 교통권입니다. 세이버데이 패스는 이름처럼 일간권에 해당하는데, 사용 기준 수 개월 전에 티켓이 오픈되며 가격은 Half-fare card 소지자 기준 29프랑, 비소지자 기준 52프랑으로 시작합니다. Half-fare card가 없는 경우에는 스위스 국내 여행 시 이 교통권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저는 친구나 가족이 방문하였을 때 미리 구매하였습니다. 스위스 패스는 일반 여행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여행권으로, 3~15일까지 선택할 수 있고 여러 할인 혜택과 무료 입장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만 25세 미만의 경우에는 추가로 유용한 두 가지 정도의 교통권이 더 있습니다. 오후 7시 이후로 사용 가능한 GA, 즉 야간 무제한 교통권인 **Night GA 패스**가 있습니다. 이는 99프랑짜리 연간권인데, 저는 처음에 ZVV가 있어 따로 구매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장거리 여행 시 야간 이동을 한다면 큰 비용을 아낄 수 있어 사는 편이 절대적으로 이득입니다. 예를 들어 취리히에서 제네바를 다녀올 때, 돌아오는 기차를 오후 7시 이후에 탄다면 무료이므로 40프랑 이상이 절약됩니다. 직원분께서 추천해주신 것 가운데 **Friends Day Pass**는 80프랑에 만 25세 미만의 최대 4인이 하루 동안 GA처럼 사용할 수 있는 교통 패스로, 교환학생 친구들과 여행 다닐 때 무척 유용합니다. 그 밖에 저는 **Summer Trial GA**를 사용하여, 여름 기간 할인된 가격으로 GA를 구매하여 한 달 간 스위스를 여행했습니다.

통신의 경우 저는 현지에서 물리 유심을 구매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폰에 넣고, 공기계를 가져가 한국 유심을 넣었습니다. 한국 유심의 경우 일시정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신 정지를 하고 문자만 수신할 수 있는 최소 요금제로 유지하였습니다. 간혹 한국 번호로 인증번호를 받을 일이 있다보니 문자 수신은 가능하게 해두는 편이 좋았습니다. 물리 유심을 구매할 경우 며칠 후 우편으로 배송해주는 경우도 있어 여유롭게 일주일 정도는 한국에서 구매한 esim을 사용하였습니다. 흔히 사용하는 통신사로는 **Swisscom, Sunrise, Salt, Swype** 등이 있는데, 저는 Sunrise에서 제공하는 알뜰폰 서비스와 같은 **yallo**에 가입하였습니다. 취리히 시내에 있는 Sunrise 매장을 방문하였고, 거주허가증이 필요한 통신사도 있지만 여기서는 여권만으로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월 20프랑 대에 스위스에서 인근 유럽 국가까지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 등 다양한 옵션이 있었습니다. 저는

통신비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위스 내 전화 및 문자가 무제한이고, 월에 데이터 10GB를 사용할 수 있는 12프랑(약 2만2천원)짜리 저렴한 요금제에 가입했습니다. 초기에 유심 발급 비용을 몇 만원 지불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유심을 바로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월 초에 yallo 앱에서 요금이 청구되며, QR 코드 형태의 invoice를 이용해서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약간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유럽 전역에서 통화와 데이터 사용이 가능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친구들도 많았지만, 저는 그때그때 이심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여행했습니다. 또한 학기 중반 시점부터 yallo에서 **무료로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 월 10GB까지 로밍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었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서비스 해지의 경우에는 2개월 전에 통지해야 했습니다.**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나, 친구들과 서로 돈을 보내거나 온라인 결제를 함에 있어 편리한 점이 있다고 들어 개설하였습니다. 저는 스위스에서 가장 큰 은행인 **UBS**가 기숙사 근처에 있어 방문하였습니다. 계좌 개설에는 여권과 거주허가증, ETH 재학증명서를 필요로 하였습니다. UBS의 장점은 계좌 개설에 별도로 비용이 들지 않고, 마트나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프랑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각 은행에서 제공하는 **TWINT**(저의 경우 UBS TWINT) 앱을 설치하면 상대방의 전화번호만으로 송금이 가능하여 편리합니다. 한국에서 카카오톡 송금하기와 유사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해외 결제 기능을 갖춘 ISIC 국제학생증을 SOL트래블로 만들어서 가져갔고, 트래블월렛이나 트래블로그 등 다른 어떤 것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분실에 대비하여 카드를 최소 두 가지는 챙겨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B. 입국 직후

a) 거주허가증 신청 (14일 이내)

스위스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은 누구나 법적으로 **거주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의무적으로 스위스 도착 후 2주 이내에 이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제가 지참해야 했던 서류는 "Extended confirmation of matriculation"과 Confirmation letter인 "Gesuch um Aufenthaltsbewilligung", 그리고 앞서 수령한 집 계약서였습니다. 교환교 등록확인서라고 볼 수 있는 Confirmation of matriculation은 myStudies라는 학교 사이트에서 Regular version과 Extended version 두 가지를 pdf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Confirmation letter는 ETH에서 이메일을 통해 파일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두 가지 파일을 모두 출력해서 가져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초반 정착 시기에는 이용가능한 프린터를 찾고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출국 전에 미리 출력해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신분증 사본 및 본교 재학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챙겨왔으나 Confirmation of matriculation이 바로 웹사이트에서 발급되지 않아 현지 도착 후 약간의 애를 먹었습니다. 참고로 ETH에는 여러 곳의 컴퓨터실이 있으며 개중 몇 개에는 프린터가 있고, IT 사이트에서 잔액을 충전한 후 학생증을 태그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서류와 여권을 챙긴 이후에는 Gemeindehaus라고 불리는 동사무소에 가서 거주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스위스의 행정 구역은 연방 내 여러 개의 칸톤(Kant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행정 시스템은 칸톤마다 상이한 편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곳은 취리히 칸톤에 속하는 Zollikon이라는 동네였기 때문에 Gemeindehaus Zollikon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이때 거주허가증 등록을 위한 비용을 내야 하는데, 2026년 취리히 칸톤 기준으로 총 184프랑(약 35만원)이었습니다. 비용이 높아보이지만 스위스 내 다른 칸톤과 비교했을 때 거주허가증 등록 비용은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을 끝마치면 바이오메트릭 센터를 방문해서 사진과 지문을 등록해야 합니다. 제가 방문한 시기는 학기 초로 사람이 몰릴 시기였기 때문에 Gemeindehaus의 직원이 현장에서 바이오메트릭 센터 방문 시간을 예약해주었고 변경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안내해주었습니다. 사진 및 지문 등록 절차는 14일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유롭게 2월 말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실물 거주허가증이 지역 우체국으로 배송되었고, 이를 찾아가라는 종이가 우편함에 도착했습니다.(본인 확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다만 여행으로 집을 비운 시기인데다 다인원이 우편함을 공유하는 특성 상 이를 기한 내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반송된 거주허가증은 Gemeindehaus에 보관되었고 추후에 여권을 보여주어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우체국, Gemeindehaus가 모두 기숙사에서 도보 10분 거리 이내라 큰 불편은 없었지만 거주허가증을 수령할 시기에는 우편함을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는 여행 중 지갑을 분실하여 거주허가증을 재발급해야 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민증 발급을 떠올리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재발급에도 큰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유사한 상황을 겪으신다면 곧바로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한 후 서류를 받으셔야 합니다. 신고 시 분실한 거주허가증이 어떤 type인지 물으실 텐데, **L-permit**(단기 허가)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분실에 대비하여 거주허가증과 같은 중요한 신분증은 앞뒤를 찍어 사본을 보관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Gemeindehaus에 분실 신고 서류를 제출하면 거주허가증 재발급이 가능한데, 취리히 칸톤을 기준으로 69프랑(약 13만원)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ETH 학생증의 경우에도 초기 발급에는 무료이지만 재발급하는 경우 25프랑(약 4만7천원)을 내야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ETH도 서울대학교와 같이 모바일 학생증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를 발급하지 않고도 학식당 할인 등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EduApp에서의 모바일 학생증은 시험 본인 확인과 건물 출입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b) 의료보험 신청 (3개월 이내)

거주 등록과 더불어 스위스 체류 시에는 **의료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필수입니다. 교환학생들은 매우 비싼 현지 보험 대신 국제학생보험에 가입하고 exemption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장 일반적인 **Swisscare의 HMIE 보험**을 선택했습니다. 월 보험료는 개인 부담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선택한 옵션은 월 38프랑(약 7만원)을 지불하는 대신, 병원비 2500프랑(약 470만원)까지는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반대로 월 115프랑(약 21만원)을 지불하고 300프랑(약 56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옵션도 있었습니다. 중간 단계의 옵션도 있지만 대체로 월 보험료가 가

장 낮거나 개인 부담금이 가장 적은 것을 선택합니다. Swisscare에 신청을 마치면 exemption을 위한 서류가 이메일로 오는데, 이를 작성하여 제시된 곳에 보내면 며칠 후 확정서를 제공해줍니다. 확정서를 토대로 SVA에 exemption을 신청하는 것까지 3개월 이내에 마쳐야 비싼 스위스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일이 없습니다. 신청 마감 기한이 입국 후 3개월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보험이 입국일부터 적용되도록 신청해야 하며, 이전 달의 보험료를 소급 지불하게 되니 신청을 늦출 이유는 크게 없습니다. 물론 보험 혜택도 소급 적용됩니다. SVA에서 exemption 신청에 대한 확정서를 다시 받아 Zollikon 관청에 보고해야 절차가 끝나지만, 이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신청을 끝마치는 대로 관청에도 진행 상황을 알려두어야 합니다.

C. 여가 및 운동

저는 서울대학교에 있을 때부터 양궁부에서 활동하는 등 운동을 즐겨하는 편이었습니다. 양궁을 지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종목의 특수성 때문에 교환학생 중에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의외로 양궁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스포츠 종목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ASVZ**라는 프로그램은 취리히 대학들이 시설을 공유하면서 학내 구성원들에게 운동 시설과 수업을 제공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취리히 각지에 여러 개의 ASVZ Sport Center가 존재하며, 종목마다 프로그램 진행 장소가 상이했습니다. ETH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메인 빌딩 바로 뒤 Polyterrasse에 위치합니다. 일부 집중 세션이나 특수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스포츠 종목을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검색 시에는 종목의 영문명이 아닌 독일명으로만 검색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양궁의 경우 Bogensport)

이외에도 스위스는 스키, 수영을 즐기기에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청년들에게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스키 패스가 제공되며 후술할 ESN Zurich를 통해서도 낮은 가격에 리프트권을 끊을 수 있습니다. 개인 고글 및 스키 장갑이 있다면 챙겨오는 것이 좋고, 스키복이나 보드를 가져온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스키나 스노보드를 경험해본 적 없는 친구들은 toboggan이라고 불리는 눈썰매를 타기도 했는데, 눈썰매 슬로프 자체가 1km를 넘기도 할 만큼 한국의 눈썰매와는 전혀 다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Mountain Coaster와 같이 눈이 아닌 슬로프를 미끄러져 내려가는 썰매도 toboggan이라 부르는데 여름에 주로 운행됩니다. 여름철에는 호숫가에서 피크닉을 하고 수영하는 것이 일상적이므로 수영복, 피크닉 매트, 비치 타올 등을 가져오시면 편리합니다. 기숙사에 인접한 취리히 호수뿐만 아니라 루체른 호수, 베른의 아레 강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영이 가능하고, 락커룸과 탈의실이 있는 무료 수영장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툰 호수 인근에서 패들보트를 대여해서 타보았던 것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D. 학내 시설

ETH의 취리히 캠퍼스는 크게 **Campus Zentrum**과 **Campus Hönggerberg**으로 구분됩니다. 두 캠퍼

퍼스는 셔틀로 15~2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는데, 학생증이 있으면 eLink 셔틀을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전공에 따라 캠퍼스가 구분되지만 경우에 따라 다른 캠퍼스에서 열리는 수업을 듣기도 합니다. 제가 수강한 수업은 모두 Zentrum에서 진행되었습니다. Zentrum은 도심 가까이 위치하며 메인 빌딩인 **HG**를 중심으로 여러 건물이 분포합니다. ETH의 건물들은 1층을 E층으로 표기하므로 이를 기준삼아 강의실을 찾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HG E1.2는 메인 빌딩 1층의 1.2호 강의실을 의미합니다. Hönggerberg는 시내에서 다소 떨어져 있지만 신식 캠퍼스입니다.

HG 건물 뒤로는 Polyterrasse라는 광장이 위치하며, 지하에 식당과 ETH 기념품샵, ASVZ 센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Polybahn이라고 부르는 푸니쿨라(산악열차)가 중앙역 방향으로 운행됩니다. HG의 옆에는 취리히 대학교인 UZH의 메인 빌딩이 있고, UZH의 법대 도서관이 미감이 뛰어나므로 방문해볼 만합니다. ETH와 UZH의 학식당은 일반적으로 Mensa라고 불리며 학생들에게 할인된 가격의 학식을 제공합니다. 학생증을 Legi라고 칭하는데, 이를 제시하면 UZH Mensa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식은 일반적으로 8~12프랑으로 한국 대학교의 학식 가격을 생각하면 비싸지만 스위스의 외식 물가에 비하면 매우 저렴합니다. 8프랑에 제공되는 저렴한 학식은 대체로 육류가 없는 비건식이었습니다. Polyterrasse 외에도 캠퍼스 곳곳에 학식당이 있지만 주로 수업이 있는 건물 근처에서 먹게 되고, 도시락을 싸서 캠퍼스 내에서 식사를 한 적도 많습니다. 가격 대비 학식 맛이 뛰어난 편은 아니어서 가끔적이면 직접 만들어 먹었던 것 같습니다.

3. 학업

A. 과목 선택

저는 수강 신청 기간이 다가오기 전 ETH에서 제공하는 Course Catalog 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시간표를 만들었습니다. 강의 항목을 누르면 'yearly recurring course'와 같이 매년 개설되는지, 격년으로 개설되는지 등의 과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의 학점 단위는 ECTS이며 우리나라의 1학점이 1.5 ECTS 내외의 분량입니다. 교환학생은 20~30 ECTS를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며, 이 중 2/3 이상의 학점을 주전공 학과에서 이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후술하겠지만 저는 10 Credit Project를 포함하여 22 ECTS를 모두 D-ITET(전기·정보공학부에 해당)에서 수강하였습니다. 수강 편람은 11월 28일에 공개되었으며, 시간표를 짤 때 참고한 예년도의 시간표와 큰 차이가 없어 계획을 크게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수강 신청은 myStudies라는 사이트에서 과목을 선택해서 담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ETH의 많은 수업들은 수강 인원 제한이 없거나 널널하기 때문에 선착순이 중요하지 않지만, 일부 강좌들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때 선착순에 들지 못하면 Waiting List에 들어가게 되는데, 수강 변경 기간 중 취소 여석이 발생하게 된다면 차례대로 등록됩니다. 저는 희망했던 한 수업에 인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천천히 신청했다가 높은 대기번호를 받게 되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강 취소를 하여 수강 변경 기간이 끝날 무렵에 겨우 신청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강좌들은 별도의 신청서 작성을 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수강 신청 방식까지 확인해두는 것을 권합니다. ETH 특성 상 출결이 자유롭고 녹화본을 제공하는 수업이 많아 수업 시간이 겹치더라도 강좌를 담을 수 있고 2주 간 수강 변경도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강 신청이 열리는 대로 듣고 싶은 과목들을 신청해두고, 강의 OT를 토대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TH의 수업은 평가가 진행되는 방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학기 중 프로젝트 등으로 평가를 하는 **Semester Performance**, 학기 말 시험을 치르는 **End-of-semester Examination**, 그리고 방학 이후 **8월에 시험을 보는 Session Examination**이 있습니다. ETH의 시험 중에는 세 번째 형태의 수업이 많아 교환을 준비할 당시 고민 끝에 귀국을 8월 말로 결정하였습니다. 학기가 끝난 후 시험을 치르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지만, 이로 인해 들을 수 있는 과목을 제한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결과적으로 ETH에서 들었던 과목들이 매우 만족스러웠고 방학 기간을 여행과 연구에 할애할 수 있어 8월 귀국을 선택한 것이 전혀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B. 시험 및 평가

ETH는 시험 응시를 위해 과목별 시험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특이한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절차는 수강 신청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날짜를 놓칠 경우 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수강 변경 기간은 개강 2주차까지였지만, 시험 신청이 3월 15일까지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기간까지 수강 취소가 가능합니다. 재학생들의 말에 따르면 시험을 앞둔 7월 말까지도 시험 신청 취소가 가능하다고 들었으나 교환학생들은 20 ECTS의 최소 학점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취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험 신청을 끝나치면 Examinations Office에서 시험 일정을 조율하여 학생들의 시험이 동시간대에 겹치지 않도록 배정합니다. 5월 7일에 Written Session Examination 과목들의 시험 일자가 먼저 발표되었으며, 이후 나머지 과목들의 시험 일자가 안내되었습니다. 여기서 Written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ETH의 시험 방식이 주로 Written / Oral의 두 가지 방식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Oral Exam 또한 ETH의 독특한 시험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이는 서울대학교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지필 시험의 형태가 아니라, 교수자 또는 조교와 학생이 문답을 하는 형식으로 과목의 이해도를 평가합니다. 제가 수강한 과목 중에는 Final Exam이 Oral인 형태가 없어서 정확한 후기를 공유할 수는 없지만, 한 과목에서 진행된 프로젝트에 대해 구술로 평가하는 추가 세션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즉 해당 과목에서는 두 번의 프로젝트와 이에 대응되는 두 번의 Oral Discuss Session, 그리고 Final Exam을 통해 성적을 산출했습니다. 구술 세션이 프로젝트 성적의 일부분이었기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지만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평가를 받는 점 때문에 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학생을 압박하는 방식의 평가는 아니었고, 답변이 불완전하거나 이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더라도 추가적인 질문들을 통해 이해도를 점검했습니다.

이때 Session Examination은 8월 한 달을 Exam Period로 설정하는데, 시험이 8월 마지막 주에

배정되어 다음 학기 개강 직전인 경우가 있습니다. 제 경우에도 한 과목이 8월 28일에 Final Exam 이 배정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9월 1일에 다음 학기의 개강을 준비하려면 이 시험을 현장에서 치르는 것이 어렵고, 기숙사 계약 기간도 8월 28일까지였습니다. 이렇게 시험이 학기와 겹치거나 개강 전 일주일 이내에 잡혔을 경우에 ETH는 국제 학생들을 위해 시험 일정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합니다. 크게 시험을 앞당기는(**Preponement**) 것과 원격으로 치르는(**Distance Exam**)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필 시험을 앞당기는 것은 대체로 앞서 언급한 Oral Exam으로 변경해야만 가능했습니다. 그 외의 방법으로는 원래의 시험 날짜와 시간에 본교 소속의 교직원을 감독관으로 두어 원격으로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행정실 선생님께서 시험 감독관을 맡아주셔서 8월 중후반에 귀국한 후 28일에 한 과목을 원격으로 치렀습니다.

ETH에는 출석을 확인하는 수업이 거의 없고, 중간고사도 선택적으로 치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Final Exam이 과목 성적을 결정짓게 됩니다. 제가 수강했던 과목 중에는 연습 세션 중 임의의 날짜에 4회 퀴즈를 치르고 일정 이상을 통과하면 학점을 한 칸 올려주는(+0.25 grade) 등의 방식으로 보너스 점수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중간고사가 있었던 과목은 중간 25% 기말 75% 혹은 기말 100% 중 원하는 반영 비율을 택할 수 있어 학생이 부담없이 중간고사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출석과 중간고사는 부가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Final Exam이 매우 중요합니다. ETH는 6점 만점의 성적 척도를 사용하는데, 이때 4점 이상이어야 통과(Pass)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대평가를 적용하는 과목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수강했던 한 수업에서는 총 점수의 50% 내외를 통과 기준으로 설정한다고 하셨습니다. 평가 방식과 성적 기준에 대한 내용은 과목마다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대비할 때는 **AMIV** 사이트에서 과거 시험 기출이나 개념 요약본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C. 전공 수업

다음은 제가 수강한 개별 과목에 대한 후기입니다. Semiconductor Devices, Communication Networks, Seminar in Computer Architecture의 세 강의를 수강했고, Semester Project는 다음 절에 별도로 서술하였습니다.

a) Semiconductor Devices [4 ECTS]

전기정보공학부의 '반도체 소자'에 대응되는 2학년 과목입니다. 이수 학점과 학년을 고려했을 때 큰 부담없이 들을 수 있는 수업입니다. 초반 부분에는 결정 구조, 에너지띠 이론, 확산 전류와 드리프트 전류 등을 배우고, 이후에 이를 적용하여 PN 접합, MOS 커패시터, MOSFET, BJT의 작동 방식을 분석합니다. 교양 물리학 정도의 선수 지식으로 반도체 소자의 원리에 대한 기초를 쌓을 수 있는 과목이라 유익하였고, Exercise 세션에서 조교님들의 강의력이 좋았습니다.

b) Communication Networks [6 ECTS]

전기정보공학부의 '데이터통신망의 기초'에 대응되는 3학년 과목입니다. 반도체 소자와 수업 시

수는 동일하지만, 한 학기 동안 두 번의 팀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각각 Routing project와 Transport project로 전체 성적의 30% 비중입니다. Routing project는 조별로 미니 인터넷을 구축하여 다른 조의 인터넷과 통신하는 과제였고, Transport project에서는 통신 패킷의 송수신 프로토콜을 구현하였습니다. 이론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로 구현하는 과정들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c) Seminar in Computer Architecture [2 ECTS]

본 수업은 컴퓨터 아키텍처 분야의 논문을 리딩하는 세미나 형식의 수업입니다. 20명 이내의 소규모 인원으로 진행되며, 개별 학생에게 1~2명의 대학원생 멘토를 지정해주었습니다. 수업 초반에는 교수님이 최신 연구 논문들을 통해 동향을 소개하였습니다. 중반부터는 각 학생들이 하나의 논문을 맡아 돌아가면서 50분 간 발표 및 Discussion 세션을 진행하였습니다. 학기 중 발표 한 번이 거의 과제의 전부였지만, 논문을 완벽히 이해하고 자신의 언어로 설명하는 것과 Discussion을 통해 인사이트를 이끌어내는 것이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에게 배정된 두 분의 멘토가 큰 도움을 주셔서 스스로도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D. Semester Project [10 ECTS]

ETH는 학부생의 연구 참여 기회가 시스템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P&S(Project and Seminars)라고 불리는 과목을 통해서 서울대의 '공학 연구의 실습'처럼 제시된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Semester Project는 학생이 개별적으로 연구실에 컨택을 하고, 해당 연구 인턴 활동에 대해 별도로 학점을 부여합니다. 이때 본인이 할애할 시간에 따라서 5 ECTS 단위로 30 ECTS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는 10 ECTS의 연구 인턴을 신청하고, 교과 수업 학점을 적게 듣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앞선 교환학생들의 후기에서 합격 직후부터 연구실에 컨택을 한 경우부터 스위스 입국 이후에 인턴을 찾은 사례까지 컨택 방식과 시기에 대한 다양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제가 경험하고 내린 결론은 두 가지인데, 1) ETH 학교 메일로 훨씬 컨택이 용이하고, 2) 특정 연구실을 꼭 염두에 두고 구하는 것이 아닌 이상 입국 이후에도 충분히 인턴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선 합격 이후에 한두 연구실에 인턴 문의를 했는데, 이 주제로는 학부생을 더 뽑지 않는다고 하거나 회신이 없었습니다. 연구 인턴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컸지만 부득이 한 경우에 Summer Internship을 하는 등의 방법도 있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느니 스위스에 가서 인턴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입국 후 2월부터 추가로 연구실들에 컨택을 하던 중, 1지망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던 교수님의 수업에 취소 여석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답장을 받지 못했지만 좋은 계기라 생각하여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다시 리마인드 메일을 전송하였고, 곧바로 답장을 받아 인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수업과 인턴 신청 모두 수강 변경 기간의 막바지였기에 마음을 내려놓고 있었는데 운이 따라주어 가장 바라던 곳에서 한 학기 동안 연

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기 중 연구 활동과 환경에 크게 만족하여 수업이 종강한 5월 이후에도 인턴을 지속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이야기가 잘 되어 여름방학뿐만 아니라 한국 귀국 이후에도 원격으로 연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연구실 위치 또한 Zentrum과 취리히 시내에 하나씩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았고, 출퇴근이 자유로워 재택근무를 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또한 탑 컨퍼런스에 논문을 제출하는 여러 연구자들의 지도를 받으며 저의 연구를 발전시키고 스스로도 큰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학기에 교환학생 생활을 하며 가장 남는 것이 많았던 활동이라고 생각하기에 기회가 된다면 강력히 추천합니다.

4. 문화

A. 언어

스위스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망슈어**의 4개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합니다. 특히 약 70%의 지역이 독일어를 사용하며, 취리히 또한 독어권에 위치합니다. 하지만 스위스에서 사용되는 독일어는 '**Swiss-German**'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방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독일어와 단어, 문법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독일에서 사용하는 표준 독일어를 '**High-German**'이라고 칭합니다. 스위스 사람들은 High-German을 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바로 알아들을 수 있지만, 독일 사람들은 단번에 Swiss-German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wiss-German을 미리 공부해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허나 많은 스위스 사람들은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고, 특히 취리히는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아 독일어를 전혀 모르더라도 생활하는 데 큰 불편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지역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그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배우려고 노력하면 좋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ETH는 학생들에게 **Intensive German Course**라는 강좌를 제공합니다. 이는 정규학기가 시작되기 이전 2주 간 교환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독일어 강좌로, 별도의 수강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High-German을 가르치지만 한 수업 정도는 Swiss-German을 특별히 다룹니다. 이 강좌의 장점은 개강 전 많은 교환학생 친구들을 사귄 수 있고, 같이 취리히 시내를 구경하거나 장을 보는 등 생활 적응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교환학생들이 추천하곤 하지만, 수업의 수강료가 약 30만원 정도로 낮지 않고 현지 도착 직후부터 2주 간 매일 09:15-15:30에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2주 간의 자유 시간 동안 여유롭게 행정 처리를 끝마치고 현지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0명 정도의 교환학생이 공유하는 기숙사를 배정받았기에 독일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도 기숙사에서 많은 친구들을 사귄 수 있었습니다. 소규모 기숙사였다면 이외에 많은 친구들을 한 번에 사귄 수 있는 경로가 드물기 때문에 독일어 수업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선호도와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기 중에도 German Course가 개설되지만 들어야하는 최소 학점에 반영되지 않고, 본교에서 학점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Intensive 강좌만큼 많은 학생들이 수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꾸준히 수강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언어를 배우고 친구를 사귀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이전에 독일을 배운 적이 없고, ETH에서 강좌를 수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독일을 아예 모르는 채로 취리히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독일을 접하게 되자 흥미가 생겼고,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단어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듀오링고 같은 어플로 독일어 공부를 지속하다보니 간단한 일상 회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독일어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지만, 간간이 안내판을 보고 내용을 이해하거나 대화를 알아듣게 되면 부쩍 문화적으로 가까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B. ESN Zurich

ESN은 Erasmus Student Network의 약자로 유럽 교환학생들을 지원하는 학생 네트워크입니다. 각종 문화 행사를 주최하거나 현지 Buddy를 연결해주고, 여러 가지 학생 할인 바우처를 제공해줍니다. 각 지역별로 ESN 단체가 존재하여 취리히에서는 ESN Zurich이 행사를 주관합니다. 학기 시작 직전에 진행되는 교환학생 Welcome Event 및 OT에서 ESN에 대한 소개와 함께 ESN Card를 만드는 것을 도와줍니다. 이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8프랑(약 1만5천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ESN에서 진행되는 많은 행사를 할인된 가격으로 참여할 수 있고 별도의 할인 바우처도 지급되니 꼭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SN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학생 할인 바우처는 FlixBus 할인, Ryanair 할인 및 수하물 무료 추가 등이 있습니다. ESN Zurich 사이트는 검색을 통해 로그인 없이 확인하실 수 있고, 지난 행사 및 앞으로 계획된 행사를 볼 수 있습니다. 스키나 패러글라이딩처럼 스위스에서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 행사도 열리고, 스위스 국내를 당일치기로 여행하는 프로그램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을 참가하며 ETH나 취리히의 다른 대학에서 교환을 하고 있는 새로운 친구들을 다양하게 사귄 수 있었습니다.

C. 여행

스위스는 여러 측면에서 여행이 용이한 국가입니다. 유럽 중부에 위치한 스위스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과 국경이 맞닿아 있어 어디든 육로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국토가 대한민국의 절반도 되지 않는 만큼 국내 곳곳을 여행하기도 좋습니다. 특히 유럽은 철도가 국경을 넘어서도 연결이 잘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기차로 많이 다녔습니다. 저는 수업이 녹화 영상을 제공하고 재택근무가 가능한 환경을 활용하여 월에 두 번 정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 결과 12개국을 여행하고 가장 멀리서 아프리카 모로코까지 가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야간 버스에서 7시간 동안 눈을 붙이며 파리까지 가거나, 사막을 가기 위해 10시간 동안 차를 타는 일도

있었지만 체력이 있을 때 해볼 만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즌에 맞추어 네덜란드 튜립 축제를 방문하거나 프랑스 칸 영화제와 같은 행사를 즐기는 것은 해외 여행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seasonal event를 많이 다니려고 했습니다.

스위스 내에서도 많은 페스티벌이 있어 사전에 날짜를 확인하고 일정을 계획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월에는 스위스의 많은 도시에서 카니발을 진행합니다. 분장을 한 사람들이 도시를 행진하는 행사가 이어지며, 저는 루체른과 바젤 카니발을 구경했습니다. 4월 말에 열리는 취리히 봄 축제 Sechseläuten에서는 거울을 물리치는 의미로 Böögg라는 눈사람을 화형합니다. 이외에도 그뤼예르 치즈 축제, 몽트뢰 재즈 페스티벌 등 지역의 전통과 특색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8월 1일 스위스 국경절에는 스위스 각지에서 축제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보통 라인 폭포 등 다양한 장소에서 불꽃축제도 진행하는데, 올해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취소되었지만 여전히 전통 행사 등 많은 즐길 거리가 있었습니다. 스위스 국내에서는 체르마트, 외시넨 호수, 라인 폭포, 융프라우, 그린델발트, 루체른, 베른, 바젤, 제네바, 로잔, 몽트뢰, 프리부르, 생갈렌, 툰 호수와 브리엔츠 호수 등 많은 곳을 여행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정말 아름답고 다채로운 자연을 곳곳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여행도 많이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별개로 스위스는 치안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타 국가에 비해 소매치기 빈도도 매우 낮은 편입니다. 또한 주말에는 N버스가 운영될 만큼 편의성과 안전성이 높습니다. 유일한 단점이라면 높은 물가이기 때문에 생활비와 여행비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비행기를 탈 때는 라이언에어, 이지젯과 같은 저가항공을 적극 활용했고, 항공편이 저렴한 밀라노 공항까지 간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Night GA를 이용하면 밀라노까지 교통비가 편도 만 원도 들지 않기 때문에 유용했습니다.

5. 맺음말

이전의 많은 ETH 교환학생분들께서 사전 준비, 학업, 문화 및 여가 활동 등 스위스 생활에 대한 상세한 후기를 남겨주셨지만, 이를 총망라하고 저 또한 나중에 돌이켜볼 수 있는 기록으로 이 보고서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교환학생 생활은 저에게 인간적으로도, 학업적으로도 큰 성장을 이뤄낼 수 있게 한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이 시기를 함께한 여러 나라 친구들과 연구실 사람들, 같은 한국인 교환학생들이 있어 큰 힘이 되었고, 교환학생 동안의 기억을 동력삼아 앞으로의 대학 생활을 잘 이어가려 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기회를 주신 공과대학 국제협력실과 공과대학 동창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